

비상경제본부 회의 겸
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
26-11-2
(공개)

기술혁신 인재 중심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계획

2026. 4. 24.

관계부처합동

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계획(요약)

1. 추진 배경

- 국가 단위와 서울의 우수한 창업생태계에도 불구하고, 지역의 창업생태계는 글로벌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
 - * 대한민국 도시 순위 : 서울(20위), 대전(366위), 부산(393위), 울산(546위), 대구(691위)
- 수도권(서울)-비수도권 간 “창업생태계 양극화*”는 심각한 수준이며,
 - * ▲VC 현황(25) : 수도권 224개사 (90.0%), ▲지역 정착률(대학 졸업후) : (수도권) 87.5%, ▲대규모(8,000㎡ 이상) 창업인프라 현황 : 수도권 11개, 비수도권 8개 구축
-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협으로 인해 지역의 혁신 인프라와 창업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상황

2. 현황 및 개선점

- (글로벌 현황) ① [글로벌 창업생태계] 우수한 지역대학(연구소), 풍부한 투자, 지역의 특화된 기술 및 정부의 지원과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

< 미국 샌프란시스코 창업생태계 현황 (실리콘밸리, 세계 1위)>

기술 인재	←	중앙 정부	· 지역 내 13개 혁신허브 개소·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급 · 정부재원을 지역 VC 펀드에 투입하여 투자재원 보조
스탠퍼드 등 지역 대학의 기술인재 지속 양성 지역 창업기획자에서 전세계 창업인재 적극 유치		지방 정부	· 기술인재 대상 R&D 자금을 지원하여 선행 R&D 지원 · 기술형 예비 창업자 대상 창업준비·실행 프로그램 지원
		민간	· 280개사 이상 지역 벤처캐피탈에서 연간 900억 달러 (약 132조원)이상의 투자를 지역 창업기업에 집행

- ② [글로벌 지표] 인재의 수급, 투자 규모, 지역의 기술 수용성 등을 주요 지표로 하여 글로벌 우수 창업생태계를 평가

양적 지표 (창업인재 수급)	질적 지표 (정부·민간 자본)	환경 지표 (우수 기술 수급)
· 창업기업 수, 투자자 수 · 코워킹스페이스 및 미팅 수	· 창업기업 연간누적 투자 규모 · 딥테크 유니콘·판테온 규모	· 신기술 도입·연구 활성화 수준 · 도시 내 우수 대학 규모 등

*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 지표 (Startup Blink)

→ ‘인재’, ‘자본’, ‘기술’ 등 **창업자원의 연결과 상호 작용**을 통해 지역 내 **지속적 창업 활동과 혁신적 가치**를 생산

- **(지역 창업생태계 개선점)** 인재, 자금, 인프라 등 창업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하고, 지역 창업자원의 연결성도 부족

- * ▲ 지역 정착률(대학 졸업 후, 한국교육개발원) : (수도권) 87.5%, (비수도권) 35.7%
- ▲ VC 현황('25) : 수도권 224개사 (90.0%), ▲ AC 현황('25) : 수도권 340개사 (67.4%)

→ **창업자원 (인재, 자본 등)의 수도권 집중 구조에서 벗어나, 창업거점의 다핵구조로의 전환과 지역자원의 시너지를 위한 연결성 강화 필요**

3. 추진 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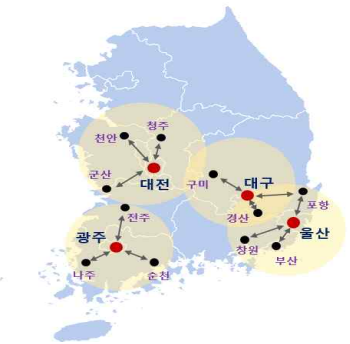
◆ **혁신 기술인재 밀집 지역 중심으로 '4대 창업도시' 우선 선정('26.상)**
 → **5극 3특을 고려하여 비광역권 중심 창업도시 6곳 추가 선정('27.상)**

- ① **[26년]** 우수한 인재 양성 인프라를 갖춘 지역*을 창업도시로 우선 선정

* 4대 과기원 : 대전(KAIST), 대구(DGIST), 광주(GIST), 울산(UNIST)

- **[27년]** 지역 균형발전, 지역 주력산업* (성장엔진 등) 등을 고려하여 추가 6곳 선정

* 벤처금융, 에너지 및 로컬 등 지역 특화형 창업도시 조성



- ② '중앙정부'의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'지방정부'의 자체 창업자원 및 인프라를 결합하여 지역별 특화된 세부 추진전략 마련
- ③ '창업'에서 시작하여 R&D, 투자, 판로까지 성장 전주기 패키지 지원 및 '창업' → '성장' → '정착'의 지역내 선순환 창업생태계 구축

4. 주요지원 내용

◆ **창업에서 시작하여 기업 성장을 위한 R&D, 사업화 자금, 투자 등의 패키지 지원과 지역 창업자원의 융합을 위한 네트워킹 지원**

- ① **(창업 인재) 기술 인재의 지속적인 유입 및 장기 정착 지원**
 - (기술창업 촉진) 과학기술원 중심의 '딥테크 창업중심대학' 신규 (~'27, 1개 → 4개) 지정 및 과학기술원 '창업원' 신설·확대
 - (기술인재 양성) 과기원 AI 단과대 설치 확대 및 거점국립대 성장엔진 분야 브랜드 단과대학* 운영 등으로 지역 핵심인재 양성
 - * 성장엔진 관련 산학연일체형 교육과정, 산업계 R&D 참여 등 성장엔진 분야 핵심인재 양성

- (정주여건 개선) 지역 내 주거·교통·문화 등 범부처 거점 조성 사업*과 연계하여 지역 창업자 정주여건 개선 지원

* 기 조성 중인 국가산단 등을 활용하여 양질의 산업용지 공급 및 정주 뒷받침(국토부)

② (R&D·규제 해소 등) 도전하는 창업자에게 성장의 기회 제공

- (R&D·실증) 창업기업 전용 R&D와 TIPS 지원 확대* (지역 50% 우선 할당) 및 지역 연구기관을 통한 실증 지원

* Pre-TIPS 내 "창업도시" 전용 트랙 또는 가점부여 등 우대 검토

- (규제 해소) 창업도시 내 신기술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지정* 및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사업화 우선 지원

* 메뉴판식 규제특례 정비 병행 : 지자체 위임 규제특례 확충 등

- (판로·글로벌) 대기업·공공기관 등과의 기술협업 등을 통해 판로 확대 및 우수 스타트업 글로벌 창업허브 프로그램(SVC_Seoul)* 연계 지원

* 단계별 글로벌 진출 지원, 오픈 이노베이션, 투자 유치, 혁신 네트워킹 지원 등

③ (자금·투자) 사업화 프로그램, 벤처펀드 등 충분한 자금 지원

- (사업화 자금)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사업화 패키지 프로그램*을 지원하고, 지역 이전기업 지원 트랙**을 신설

* 사업화 자금(시험·실증비 등), IR 피칭 및 개방형혁신 협업 추진비 지원 등

** 기업 부담금의 10%를 지방정부가 부담, 성과 우수기업 차년도 추가 지원(연간 2.5~3.5억원)

- (벤처펀드) 4대 거점 창업도시 등을 포함한 지역에 '지역성장펀드'(모펀드)를 '26년 4,5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('30년까지 2조원 조성)

* 지역성장펀드 자금으로 과기원과 연계한 4대 창업도시 특화펀드 조성

- (투자 기관) 투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엔젤투자허브(4개소 → 14개소), KVIC 지역사무소(1개소 → 7개소)* 등 지역 투자 인프라를 확장

* 광주·대구·대전 신설('26.하~) 및 기존 부산사무소에 울산 전담인력 배치('26.하)

④ (로컬창업) 로컬창업 연계로 지역 창업생태계의 균형적 확장 지원

- (로컬기업 육성) '강한소상공인', '로컬크리에이터', '로컬브랜드' 사업 "창업도시" 지역 우대 (지원규모 확대 등)

- (로컬상권 활성화) 지방 중심의 '로컬거점*상권'(~'30, 50곳) 및 글로벌 관광지급 '글로벌상권' 선정(~'30, 17곳) 시 연계 지원

* 로컬기업 집적도, 지역산업·상권 대표성, 방문객 인지도 등 기준으로 선정

- (로컬창업 확산) 오디션 방식으로 유망 로컬창업자 발굴, 전문 보육을 통해 준비된 창업 지원하고, 지방 소재 로컬창업 지원*을 90%로 확대

* 지방 로컬창업 지원 목표 : ('20~'25 평균) 79% → ('26~'30 평균) 90%

⑤ (통합 거버넌스) 충돌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혁신을 창출

- (거버넌스) 지방정부 중심으로 지역 내 연구기관, 대학 및 창업지원 기관(창업센터 등)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통합 거버넌스 구축

* 지방정부는 연구기관, 투자사,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'창업도시 추진단' 구성

〈 대전시 창업도시 추진단 구성 예시 〉



- (지역창업 페스티벌) 5극 3특 광역권별 혁신주체를 통합하는 지역 창업 행사를 창업도시에서 개최하여, 기술·사업화 교류 촉진

* 창업기업, 투자사, 대중견 등이 집적·교류하는 행사를 광역권역별 연 12회 내외 개최 하며, IR, 구매상담회, 네트워킹 등 교류 프로그램과 성과공유회 등 부대 프로그램 구성

- (창업지원 공간) 지방정부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의 국·공유재산을 사무·네트워킹 공간, 공동기숙사 등 창업지원 공간으로 활용

5. 세부추진 일정

- 추진계획 발표('26.4) → 지역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(~'26.6) → 정부 패키지 지원 개시('26.하)

* '27년 선정 지역(6곳)에 대한 선정·지원 절차는 별도 진행

순 서

I. 추진배경	1
II. 생태계 동향 및 개선점	2
III. 정책비전 및 전략	5
IV. 추진 방향	6
V. 정부 지원 방향	7
VI. 추진 일정	20

I. 추진 배경

- **(주요현황)** 우리나라 (국가 단위) 스타트업 생태계는 세계 20위로 평가받으며, 글로벌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 중
 - * 우리나라 글로벌 순위(2025 Startup Blink) : ('23) 20위 → ('24) 20위 → ('25) 20위
- 도시 단위로 서울시의 글로벌 창업생태계 수준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, '25년 기준 20위를 기록
 - * 서울 글로벌 순위(2025 Startup Blink) : ('23) 24위 → ('24) 21위 → ('25) 20위
- 아울러, 우리나라는 OECD 기준 R&D 투자 비중 세계 2위, 특허 출원 세계 5위 및 세계혁신역량 6위 등 우수한 창업환경을 조성
 - * GDP대비 R&D 투자비율('23) : 이스라엘(6.3%), **한국(5.0%)**, 대만(4.0%) 등
 - ** 세계 특허출원 순위('24) : 미국, 독일, 일본, 중국, **한국** 순
 - *** 세계혁신지수('24) : 스위스, 스웨덴, 미국, 싱가포르, 영국에 이어 우리나라는 6위 (규제환경, 고등교육 수준 등 혁신투입 요소와 지식창출 등 혁신산출 요소 평가)

- **(문제사항)** 국가 단위와 서울의 우수한 창업생태계에도 불구하고, 지역의 창업생태계는 글로벌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
 - * 창업생태계 500위권 내 도시(Startup Blink, '25) : **한국 3곳**, 미국 137곳, 중국 26곳
- 서울 제외 우리나라 도시 중 세계 100위권 이내 도시는 전무하며, 500위권 이내 도시 또한 2개(대전 366위, 부산 393위)에 불과

<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국가별 현황 (2025 Startup Blink) >

구분							
		대한민국	미국	영국	독일	중국	일본
국가 순위		20	1	2	7	13	18
도시 (개)	100위권	1	32	4	3	7	1
	101~500위권	2	105	30	24	19	5

※ 대한민국 도시 순위 : 서울(20위), 대전(366위), 부산(393위), 울산(546위), 대구(691위)

- 수도권(서울)-비수도권 간 “창업생태계 양극화”는 심각한 수준이며,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협으로 인해 지역의 혁신 인프라와 창업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상황

II. 생태계 동향 및 개선점

1. 글로벌 창업도시 특징

- **(글로벌 현황)** 우수한 지역대학(연구소), 풍부한 투자, 지역의 특화된 기술 및 정부의 지원과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

[미국]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			
기술 인재		중앙 정부	· 지역 내 13개 혁신허브 개소·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급 · 정부재원을 지역 VC 펀드에 투입하여 투자재원 보조
스탠퍼드 등 지역 대학의 기술인재 지속 양성		지방 정부	· 기술인재 대상 R&D 자금을 지원하여 선행 R&D 지원 · 기술형 예비 창업자 대상 창업준비·실행 프로그램 지원
지역 창업기획자에서 전세계 창업인재 적극 유치		민간	· 280개사 이상 지역 벤처캐피탈에서 연간 900억 달러 (약 132조원)이상의 투자를 지역 창업기업에 집행
[독일] 뮌헨 메트로폴리탄			
기술 인재		중앙 정부	· 교원·연구원 생활비 및 창업실행 준비금 지원 · 연구기관-창업기업 협업 특화형 R&D 자금 지원
뮌헨공과대학과 프라운호퍼 연구소		지방 정부	· 교원·연구원 대상 초기 창업사업화 보조금 지원 · 연구원 보유 기술 활용 사업화 시, 사업화 보조금 지원
교원·연구원 중심의 기술인재 지속 양성		민간	· 바이에른주 내 지역 벤처캐피탈에서 연간 230억 달러 (약 33조원) 규모의 투자를 지역 창업기업에 집행

- **(글로벌 평가지표)** Startup Blink의 창업생태계 평가지표는 양적, 질적, 환경 지표 등 3가지 요소를 구분하여 평가
 - 인재의 수급, 투자 규모, 지역의 기술 수용성 등을 주요 지표로 하여 글로벌 우수 창업생태계를 평가하고 있으며,
 - 특히, 코워킹스페이스 수, 스타트업 미팅 수 및 글로벌 이벤트 및 컨퍼런스 규모 등의 창업 주체간 네트워킹을 고려

양적 지표 (창업인재 수급)	질적 지표 (정부·민간 자본)	환경 지표 (우수 기술 수급)
· 창업기업 수, 투자자 수 · 코워킹스페이스 및 미팅 수	· 창업기업 연간누적 투자 규모 · 딥테크 유니콘·판테온 규모	· 신기술 도입·연구 활성화 수준 · 도시 내 우수 대학 규모 등

*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 지표 (Startup Blink)

→ ‘인재’, ‘자본’, ‘기술’ 등 **창업자원의 연결과 상호 작용**을 통해 지역 내 **지속적 창업 활동과 혁신적 가치**를 생산

2. 국내 도시별 현황

* 창업도시 사례 및 지표분석 연구(STEPI, '26.1)

- **(도시별 유형)** 비수도권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창업생태계 특성을 분류하기 위해 정량 지표 (R&D, 투자, 인프라, 인력 등)에 기반하여 도시를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
- ① 대학 및 연구기관 중심형, ② 앵커기업 중심형, ③ 특화 산업 중심형, ④ 인프라·실증 중심형

< 도시 유형 및 대표 광역·기초 시 >

유형	특징	광역	5급 3특별 해당 도시(예)
대학 및 연구기관 중심형	○ 연구·대학 인프라 (연구비, 인력, 성과 등) 보유, 대학·연구소 기술이 창업으로 연계	대전광역시, 부산광역시	경북 포항시(대경권) 경북 경산시(대경권) 경남 진주시(동남권) 강원 춘천시(강원도) 전남 순천시(호남권)
앵커기업 중심형	○ 지역 내 대·중견 앵커기업을 중심으로, 오픈 이노베이션, 투자, 기술 협력 활발	울산광역시	경북 구미시(대경권) 충남 천안시(중부권) 충남 아산시(중부권)
특화 산업 중심형	○ 지역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, 중심 기관(공공, 연구소 등)의 집적 및 연구개발 중심		강원 원주시(강원도) 전남 나주시(호남권) 전남 목포시(호남권) 전북 익산시(전북도) 충북 청주시(중부권)
인프라·실증 중심형	○ 창업 지원 인프라 (스타트업파크, 창업중심대학 등) 및 신기술 테스트 베드(실증) 중심	인천광역시, 대구광역시, 광주광역시	경남 창원시(동남권) 전북 전주시(전북도) 제주 제주시(제주도)

- **(시사점)** 도시별로 발달한 생태계 요소가 상이하므로 **확일적 지원은 지양**
- 각 도시가 보유한 **강점** (예: 연구개발)을 기반으로 **취약 요소** (예: 민간 자본 등)를 보완 하는 **유형별 맞춤형 균형 전략**이 요구

< 도시 유형별 지원시 고려사항 >

유형	강점	지원시 고려 사항
대학 및 연구기관 중심형	○ 지역 내 대학 기반의 인재 및 연구, 연구기관이 집적된 유형으로 인재와 연구개발에 강점	○ 기술사업화의 연계 , 연구 성과의 시제품 제작 및 시장 테스트 지원 , 민간 자본 확대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
인프라·실증 중심형	○ 권역 내 다수의 창업인프라 (HW, SW)가 집적되어 있고, 시제품 검증 및 실증에 강점	▶ ○ 하드웨어 집적도에 비해 이를 채울 소프트웨어 (투자, 보육 프로그램, 네트워킹) 역량이나 정착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음

3. 비수도권 도시 애로 및 개선점

1] 창업인재 유입 및 유지 애로

- 지역대학 출신의 상당수가 졸업 후 수도권으로 취업·창업 지역 내 인력 확보를 위한 유인력 부족

* 지역 정착률(대학 졸업 후, 한국교육개발원) : (수도권) 87.5%, (비수도권) 35.7%

- 지역대학의 창업생태계 연계 부족으로 지역의 우수 인력 유출

2] 자금 접근성의 부족

- 최근 5년간의 비수도권 지역 벤처투자 비중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, 전체 투자액 규모가 20%대로 여전히 미흡

* 비수도권 벤처투자 비중 : ('21) 18.2% → ('22) 19.4% → ('23) 26.7% → ('24) 24.7%

- 투자자 또한 투자금 유치, 투자대상 탐색이 유리한 수도권에 편중

* VC 현황('25) : 수도권 224개사(90.0%), 비수도권 25개사(10.0%)

AC 현황('25) : 수도권 340개사(67.4%), 비수도권 161개사(32.6%)

3] 창업자원의 연결성 부족

- 지역은 창업 지원기관, 대학·연구기관 등 창업 주체 간 연계가 부족하여, 창업자원과 역량의 시너지 한계

* 수도권은 판교 테크노밸리, 서울창업허브 등에 스타트업, VC, 대학·연구기관이 물리적 집적

- 지역 창업주체 간 네트워킹 및 자원의 집적을 주도할 컨트롤타워 부재 등 자원의 연결성 부족

→ 창업자원 (인재, 자본 등)의 수도권 집중 구조에서 벗어나, 창업거점의 **다핵구조**로의 전환과 지역자원의 시너지를 위한 **연결성 강화** 필요

* 스타트업 블링크 최고 경영자 "서울로의 과도한 집중 문제, 다핵 구조가 형성되면 국가 전체의 회복력 훨씬 강해질 것"(동아일보, '25.10.30)

Ⅲ. 정책비전 및 전략

◆ ‘인재’, ‘기술’의 지속 공급이 가능한 과기원 소재지 4곳을 창업도시 선도모델로 지정하고, 이를 확산하여 전국 10개소 조성(~’30)

비전	‘5극 3특’ 권역별 창업도시 육성, 지역 모두의 성장 달성
목표	창업생태계 세계 100위권 ‘창업도시’ 5곳 창출(~’30)

기술인재 중심 4대 ‘창업도시 조성’

대전광역시	대구광역시	광주광역시	울산광역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국내 최대 출연연 집적 지역 ▶ 종합형 딥테크 특화 창업 도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지방정부 신산업 5대 전략 추진 ▶ AI·로봇산업 기반 첨단 제조 도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국내 최대 AI·AX 단지 조성 ▶ AI·모빌리티에너지 융합 실증 도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지역 대기업 수요 (미래차 등) 특화 ▶ 대기업 협력 기반 세계 최고 실증 도시

지역별 창업생태계 여건을 고려한 모듈식 지원

성장 전주기 지원	창업인재	○ 과기원의 창업기능 강화 및 지역 창업인재 발굴·지원
	R&D·규제	○ 전용 R&D·실증 지원 및 신기술 규제 해소
	자금·투자	○ 지역 성장동력과 연계한 사업화 자금 및 펀드 공급
	판로·글로벌	○ 개방형 혁신을 통한 판로 지원 및 글로벌 진출 연계 지원
창업 여건 강화	○ 창업 인프라 및 거버넌스 구축, 창업붐 조성, 정주여건 개선 등 창업 활성화 여건 조성	

IV. 추진 방향

- ◆ ① 기술인재 중심, ② 지역특화 성장, ③ 중앙-지방정부 협력형 기획, ④ 지속가능 창업생태계 조성의 4가지 관점에서 창업도시 조성 추진

1 기술혁신 인재 중심 창업도시 조성

- [26년] 우수한 인재 양성 인프라를 갖춘 지역*을 창업도시로 우선 선정, 성장 전주기 지원
 - * 4대 과기원: 대전(KAIST), 대구(DGIST), 광주(GIST), 울산(UNIST)
- 과기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고, 지역 내 일반대학까지 확대
- [27년] 지역 균형발전, 지역 주력산업* (성장엔진 등) 등을 고려하여 추가 6곳 선정
 - * 벤처금융, 에너지 및 로컬 등 지역 특화형 창업도시 조성



2 지역 성장동력 산업과 연계한 지역 특화 성장

- 지역별 특화산업*과 연계하여, 관련 스타트업이 지역의 성장동력으로서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
 - * (대전) 종합형 딥테크, (대구) 로봇(피지컬AI), (광주) AI, 스마트에너지 (울산) 미래 모빌리티 등
- 5극3특 성장엔진 산업과 지역주력산업을 함께 고려한 지역 특화 지원

3 중앙정부 '기본계획'과 지방정부 '특화전략'이 결합한 협력형 기획

- '중앙정부'의 기본계획*을 기반으로 '지방정부'의 자체 창업자원 및 인프라를 결합하여 지역별 특화된 세부 추진전략 마련
 - * 지원사업 메뉴판식(① 인재 발굴, ② 기술, ③ 사업화, ④ 투자유치, ⑤ 로컬, ⑥정주 등) 제공
- 지방정부의 주도적 기획* 등 지역이 주도하고,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방식
 - *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 지방정부에서 지원대상, 분야 등을 직접 설계

4 창업에서 정착까지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 조성

- 혁신 인재의 '창업'에서 시작하여 R&D, 실증, 투자, 판로까지 기업 성장을 위한 전주기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고,
- 지역 내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정주 여건 조성을 병행, '창업' → '성장' → '정착'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생태계 구축

V. 정부 지원 방향

- ◆ **창업도시 사례-정의**를 기반으로 '창업도시' 조성을 위한 **지원 방향 설정**
 - **(정의)** 창업 혁신자원(인재, 기술, 자본, 시장, 지원 등)이 집적되고, 직·주·락 환경이 구축되어, 우수한 창업 인재가 모여 창업 활동·성장이 지속발생되는 도시
 - **(지원)** 창업에서 시작하여 기업 성장을 위한 R&D, 사업화 자금, 투자 등의 패키지 지원과 네트워킹 등을 통한 지역 창업자원의 교류와 융합 지원
 - **(체계)** 중앙정부 메뉴판식 공통 지원방향 제시 → 지방정부 특화전략 수립

1 **창업의 씨앗인 기술 인재가 지역에 끊임없이 유입되게 하겠습니다.**

- 과기원의 창업지원 기능 강화 및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인재의 유입과 장기 정착을 유도

□ **과기원 창업 및 인재양성 기능 강화**

- (기술창업 촉진) 과학기술원(KAIST 등) 중심의 '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' 신규(~'27, 1개→4개) 지정 및 '창업중심대학' 확대* 지정 검토
 - * (현재) 11개 → (추가) 전국 17개(~'30, 인천, 대구, 울산, 제주, 세종, 전남 등)
 - 과학기술원 창업원 신설·확대 등을 통한 딥테크 창업자 발굴·육성

※ KAIST 창업원('14년 설립) : KAIST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창업자 발굴, 멘토링, 사업 고도화 및 투자유치 등 딥테크 기술창업 지원 → 1,914개사 창업지원

- (학사제도 개선) : ① 창업 승인 절차 간소화, ② 학생·교원에 대한 창업 제한 완화 등 과기원 창업규정·제도 개선
 - * ① 10단계, 최장 6개월 → 7단계, 약 2주, ② 창업 휴직(現3년)·겸직(現2년) 기간 연장, ③ 개별 과기원법 내 이해충돌방지법 조항(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)에 대한 특례 마련
 - 과기원 중심으로 창업 규정을 개선하고 일반대학까지 확산 추진

※ 독일 뮌헨공대 : 창업을 위한 교수 휴직 기간을 최대 5년까지 허용, 휴직기간 종료 후에도 5년 단위로 재신청 가능(재신청 횟수 제한 없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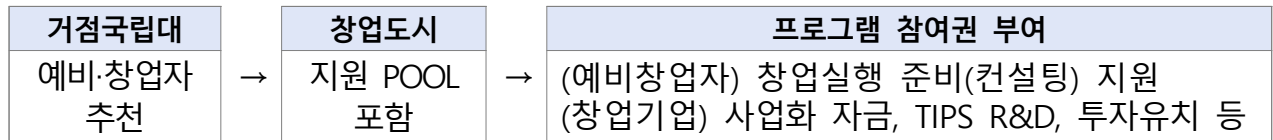
- (지역인재 양성) 과기원 AI 단과대 등 설치 확대('26년 KAIST → '27년 3개 과기원 및 거점대 확대)로 지역 AI 핵심인재 양성

- 과기원-지역대학 간 학점교류, 교원겸직 활성화를 통해 우수 교과 상호 개방, 교과 공동개발, 공동강의 등 지역 AI 교육 협력

* 지역 특화 산-학 협력연구 공동참여, 공동대학원(공동학위제), 지역대학 학부생의 과기원 연구과제 참여 등 과기원+지역대학 연계트랙 운영

- 지역 거점국립대에서 역량 있는 (예비)창업자를 추천*받아 창업 도시 지원 POOL로 관리·지원

* 브랜드 단과대학 등을 통해 성장엔진·AI분야 핵심인재 추천



□ 인재 유입 및 장기 정착 지원

- (유입인재 발굴) 전국 대학·연구기관의 TLO(기술이전 전담조직)를 통해 우수 기술인재를 발굴, 창업도시로의 유입 촉진을 위한 체계 마련

< 기술·창업 인재 발굴 협력기관 예시 >



- 아울러, 창업도시 내 창업기업이 외부 기술 도입을 희망할 경우, 각 협력기관을 통해 기술 확보 지원

* 지원 체계 : ① 스타트업 기술 수요접수 → ② 기술 관련 대학·연구기관에 수요 전달 → ③ 전국 대학·연구기관 중 적합 기술발굴 → ④ 기술매칭.이전

- (정주여건 개선) 지역 내 주거·교통·문화 등 범부처 거점 조성 사업*과 연계하여 지역 창업자 정주여건 개선 지원

* 기 조성 중인 국가산단 등을 활용하여 양질의 산업용지 공급 및 정주 뒷받침(국토부)

- 특히, 타 지역에서 창업도시로 이전·창업하는 창업자 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거비, 교통비, 문화활동비 등의 정착지원금 지원 검토(지방정부)

※ 대전시 : 스타트업파크 입주기업 근로자 대상 주거비(1인 최대 월 20만원) 지원
대구시 : 대구시 콘텐츠 산업 또는 전략산업분야 창업자 대상 임대주택 제공(100세대)

2

도전하는 창업자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겠습니다.

- 기술혁신을 위한 TIPS R&D, 신기술 도전 촉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, 국내·외 판로 지원까지 스타트업 성장 지원

□ **지역 성장엔진 산업과 연계한 지역주도 성장**

-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별 성장엔진* 등 지역특색(산업·기술) 기반의 기술 인재형 창업도시를 기획하되,

* 지역 수요·여건, 국가 산업전략, 기업투자 등을 고려하여 초광역 단위 전략산업 ‘5급 3특 성장엔진’ 선정 예정(산업부, ‘26.3분기)

- 지방정부의 원활한 창업도시 조성을 보조하기 위해, 중앙정부에서 창업지원 역량(예산, 사업 등)을 집중 공급

< 중앙-지방정부의 역량 결집 구조 예시 >

구분	지방정부 주도		중앙정부 공급
인재	지역 대학, 연구기관을 중심으로, 교원·연구원 중 (예비)창업가 지속 발굴	+	전국 대학·연구소의 교원·연구원 중 (예비)창업가 발굴, 각 창업도시에 공급
HW	지역 보유 사무·입주, 주거 등 지역 내외 창업기업의 창업 성장과 지역 정주를 위한 공간 마련	+	입주(스타트업파크 등), 창작(메이커), 투자(엔젤허브, K-VIC) 등 창업 특화 공간·인프라 공급
SW	지역 대학·연구기관 협업형 R&D 지원 및 창업성장지원 예산·사업 투입	+	R&D(TIPS 등), 사업화(투자연계형), 투자(지역펀드), 로컬(강한 소공인) 등 지원

- 지역특화 분야는 성장엔진 산업을 중심으로 하되, 지역의 다양한 특화산업 지원을 위해 개편되는 ‘지역주력산업’을 함께 고려

* 창업도시 중점지원 지역특화 분야 = ‘5급 3특 성장엔진 산업’ + ‘지역주력산업(개편)’

□ **제품 고도화를 위한 R&D · 실증 지원**

- (R&D 지원) 창업기업 전용 R&D 지원 확대* 및 제품 고도화를 위한 지역 TIPS 지원 확대 (지역 50% 우선 할당)

* 창업성장 R&D 지역 전용트랙 운영시 ‘창업도시’ 지원 기업수 배정 규모 확대

- Pre-TIPS 내 ‘창업도시’ 전용 트랙 또는 가점부여 등 우대 검토

- (실증 지원) 지역 혁신기관이 보유한 전문 장비와 지원체계를 활용, 첨단 제조 스타트업의 제품 고도화 및 제작 지원

※ 초격차 프로젝트(DIPS) : 바이오(신약) 창업지원을 위해 국가독성과학연구소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, 기관 내 독성평가·약리시험 등 신약 기술(레시피)의 실증을 지원

- (제작 지원) 과기원·지역혁신기관 등과 협력하여 첨단제조 및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단계 진입을 위한 제품 제작 지원

* ‘첨단제조 스케일업’ : 시제품·파일럿 제작, 제품 고도화, 신뢰성시험·평가인증지원 등

- 제조창업의 쉼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메이커 공간* 조성

* 메이커스페이스 거점랩을 창업도시별 1개소씩 구축(제조 창업의 물리적 개방형 플랫폼)

※ 거점랩 예시 : (대표기관)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-(협업기관) 북성로일원사회적협동조합, (주)줌랩 등 3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정형외과용 의료기기 인·허가, 제품화 협업

- (공공기관 연계) 지역 공공기관의 데이터, 실증 인프라 활용 연계

* 예) 나주 한전 : 스타트업 캠퍼스, 데이터 프리존 설치, 에너지 공대 활용 실증 지원

□ 신산업 도전을 위한 규제 해소 지원

- (규제자유특구 지정) 창업생태계를 갖춘 창업도시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추진하고, 메뉴판식 규제특례 확대 및 정비

- 지역주력산업 관련 규제특례를 대폭 확충 하고, 지역 특수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규제특례 집중 확대

※ 규제특례 유형 : 절차간소화^{87개}, 기준완화^{48개}, 금지·제한 해제^{27개}, 적용배제^{14개}, 지자체 권한이양^{14개}, 기간 단축·연장^{13개} 등 총 209개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운영중

<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사례 >

- ① **절차 간소화** : 특허출원 우선심사, 의료기기 제조허가 우선심사,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 등 지정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(일정요건 필요) 등 절차 간소화
- ② **기준 완화** : 건폐율, 용적률 한도 완화, 동일 산업단지 사업자는 환경기술인 공동 임명 가능, 산업용지 분할 최소면적 기준 완화 등 기준 완화
- ③ **금지·제한 해제** : 도로점용허가 특례, 관광단지 내 단독·공동주택 건립 허용 등

- (규제입증책임제) 기업이 아닌 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시 규제를 개선 해야하는 '규제입증책임제' 적극 활용
 - *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조례, 규정 및 지침 등에 적용
- (사업화 지원) 규제자유특구 사업자(창업기업)를 대상으로 BM고도화, 투자유치 등 사업화* 지원 및 제조 창업공간 우선** 제공
 - * 특구사업자(창업기업) 대상 '지역 특화창업 패키지' 사업 지원우대(가점 또는 쿼터 제공)
 - ** 특구사업자의 메이커 스페이스(거점랩) 이용 신청시 장비 사용 우선권 부여
- (특례 지원) 지방정부가 조례·행정규칙을 제·개정을 통한 인허가 및 지방세 특례 등 지원 (지방정부 협의를 통해 특례 지속 발굴)

※ 부산시(청년창업지원 조례) : 창업교육·컨설팅, 창업공간 제공, 창업자금 및 보조금 지원 등
 인천시(기업투자유치지원에 관한 조례) : 교육훈련·고용시설 보조금, 임대료 지원, 지방세 감면 등

□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판로·글로벌 지원

- (판로확대) 딥테크밸류업 협력* 및 창경센터의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을 활용하여, 대·중견 협업을 통한 신기술·판로 지원

* 예) 딥테크밸류업 프로그램 내 '지역 밋업'을 창업도시 내에서 개최

※ 대구창경 C-Lab 액셀러레이팅 운영 :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 사업화 지원, 투자, 글로벌 진출까지 원스톱 지원 (사업화자금 최대 3.5천만원, CES 삼성 C-Lab관 참가지원 등)

- (글로벌 진출) 글로벌 경쟁력 보유한 지역 추천 (창경센터) 우수 스타트업에게 '글로벌 창업허브' 프로그램* (SVC_Seoul) 연계 지원

* 스타트업 해외 진출을 위한 ① 단계별 글로벌 진출 지원, ② 오픈 이노베이션, ③ 투자 유치, ④ 혁신 네트워킹, ⑤ 지역 커뮤니티 등 5대 프로그램 운영

- 글로벌 진출 준비부터 진출, 성장까지 단계별 메뉴판식 지원 및 글로벌 대기업·VC 협업 기회 제공 등

※ 메뉴판 지원 : ① 현지 시장조사, ② 컨설팅, ③ 국제 특허 컨설팅, ④ 현지 인증 취득, ⑤ 전시회 참가, ⑥ 현지 액셀러레이팅, ⑦ 해외 법인설립 지원, ⑧ 글로벌 투자유치

- 지방정부의 프로그램 기획 참여를 통한 **지역특화 사업화 자금 지원** 및 **지역 전용 펀드** 등을 통한 **지역의 충분한 자금 지원**

□ **성장을 위한 충분한 자금과 투자 지원**

- (창업사업화) 지역 소재·이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, 지역 특화 산업 분야에 대한 **창업사업화 패키지 프로그램*** 지원

* BM 고도화, 마케팅, 규제 컨설팅 등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되, 지역 성장동력 산업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·분야 등을 지방정부 주도로 기획

- (융자 우대) 창업도시 지원 프로그램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**정책 자금 심의 '패스트 트랙'** 적용 (심의 기간 3주 → 10일 수준으로 단축)

- 통상의 심의 과정 (사전평가 + 본평가(현장평가))에서 **'사전평가' 면제**

※ AX 스프린트 우대트랙 운영('26~) : AX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, AI 및 AI 관련 분야를 영위·활용·도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'신속 평가' 등 우대 적용

- (보증 지원) 정부 R&D 성공기업 및 공공연 기술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**R&D 프로젝트 보증*** 및 **R&D 사업화 유동화 보증**** 우선 지원

* R&D 과제를 평가·소요자금 산정하여 기존 정책보증과 별도 한도로 사업화 보증을 지원

** R&D 사업화 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사업화 자금의 직접조달 지원

- (펀드 조성) 4대 거점 창업도시 등을 포함한 지역에 **'지역성장펀드'** (모펀드)를 **'26년 4,5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**

* 4극3특 중심의 초광역권 벤처투자 생태계 육성을 위해 3.5조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(~'30)

※ '26년 지역성장펀드 선정 : 대경권 750억원, 서남권 750억원, 전북 600억원, 대전 350억원, 울산 350억원 모태펀드 출자 → 지역사회, 민간 포함 총 4,500억원 이상 조성 목표

- 모펀드별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역주력산업 및 과기원 특화 연구 분야 등에 중점 투자하는 **4대 창업도시 특화펀드 조성**

- (투자 기관) 투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**엔젤투자허브(4개소 → 14개소), KVIC 지역사무소(1개소 → 7개소)*** 등 지역 투자 인프라를 확장

* 광주·대구·대전 신설('26.하~) 및 기존 부산사무소에 울산 전담인력 배치('26.하)

□ **대학·연구기관의 인재·기술 기반 특화 투자 활성화**

- (기술지주) 전국 대학·연구기관 TLO를 활용한 기술인재 발굴 시, 대학과 출연연의 기술지주가 투자한 창업기업을 함께 발굴하고,
* 대학 : 대학별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(=대학기술지주), 출연연 : 한국과학기술지주
- 대학·출연연의 기술을 신규 이전받는 창업기업과 기술지주 간 네트워킹 및 IR을 통한 신규 투자 촉진

4 로컬창업 연계로 지역 창업생태계의 균형적 확장을 지원하겠습니다.

- '기술창업'을 중심으로 지원하되, 지역의 생활경제를 담당하는 '로컬 창업'과의 연계·협력을 통해 '기술-로컬' 창업의 균형있는 성장 도모

□ **생활경제 기반의 로컬창업 연계**

- (로컬기업 육성) 유망소상공인과 창작자, 스타트업 간 협력·융합 지원 및 지역의 자원·특성 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연계 지원
- '강한소상공인', '로컬크리에이터', '로컬브랜드' 사업 등 '창업도시' 지역 로컬사업 우대 (지원규모 확대 등)
-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예비 로컬창업자, 로컬창업기업의 성장 등을 지원하는 로컬창업타운 확대 ('25년 8개소 → '30년 17개소)
- * ▲ 지방정부 : 로컬창업타운 구축공간 제공, ▲ 중기부 : 리모델링 및 프로그램 운영

※ 로컬창업타운 운영 현황 : 세종, 부산, 대전, 대구 등 8곳 지정 (지역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코워킹스페이스,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 등 소상공인 혁신 공간으로 운영 중)

- (로컬상권 활성화) 지방 중심의 '로컬거점*상권'(~'30, 50곳) 및 ^{문체부}지역관광 선도권역 등 연계하여 글로벌 관광지급 '글로벌상권' 선정(~'30, 17곳)
- * 로컬기업 집적도, 지역산업·상권 대표성, 방문객 인지도 등 기준으로 선정

□ **기술-로컬창업 통합 창업분 조성**

- (로컬창업 확산) 오디션 방식으로 유망 로컬창업자 발굴, 민간 투자사의 전문보육, 사업화 자금 등으로 준비된 창업 지원
- 지방 소재 로컬창업 지원을 90%로 늘려 상권 균형발전 촉진
- * 지방 로컬창업 지원 목표 : ('20~'25 평균) 79% → ('26~'30 평균) 90%

- (통합 페스티벌) 지역별 창업 페스티벌을 지역 로컬축제와 연계, '로컬 세션'을 별도 운영하여 로컬 연계 활동 홍보 및 성과 확산

※ 통합 페스티벌 예시 : 대전 어궁동 거리 일대의 상점가에서 개최되는 '대전 스타트업 투자워크'를 '대전 빵축제', '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' 등과 연계 개최

- (사회적 연대) 지역 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창업기업과 사회적 기업, 소셜벤처 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업 과제* 추진

* 지역 사회문제 공개(공공기관) → 사회적경제기업(해결방안)-창업기업(기술공급)이 공동 솔루션(사업계획) 수립 → POC 비용 지원(창경) → 우수 솔루션 공공기관에서 선정 및 구매

5 어우러지는 거버넌스, 충돌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겠습니다.

- 창업지원 기관, 대학·연구기관, 투자자 및 창업자 등 다양한 창업주체가 한 공간에 모여 충돌과 융합을 통한 자발적 지역혁신 유도

□ 통합 거버넌스 구축

- (거버넌스) 지방정부 중심으로 지역 내 연구기관, 대학 및 창업지원 기관(창경센터 등)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통합 거버넌스 구축

* 지방정부는 창업도시 전략 실현을 위해 연구기관, 투자사,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'창업도시 추진단' 구성(지역 앵커(라이즈) 위원회 연계)

< 지역별 창업도시 추진체계(안) >



□ 충돌과 융합을 위한 교류의 장 마련

- (창업공간 확충) 창업 주체간 협력·지원(투자, 사업화, OI 등)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창업 공간 및 협업 기회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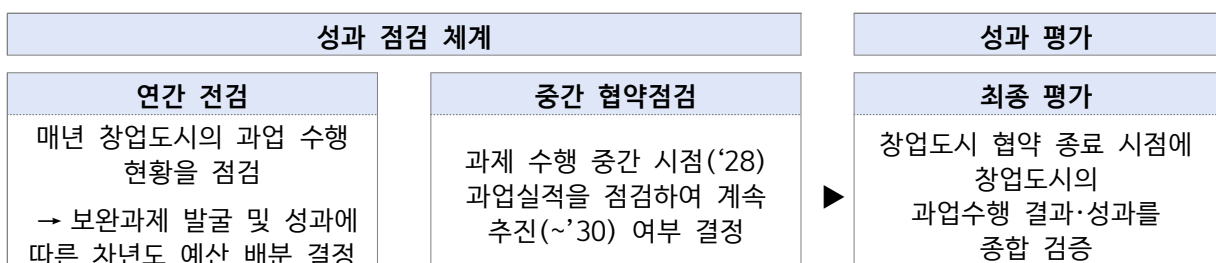
- 제조창업의 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메이커 공간* 조성 및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활동 공간 확충

- *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랩 : 창업도시별 1개소씩 구축·운영되는 제조 창업의 물리적 개방형 플랫폼으로, 누구나 손쉽게 기술·아이디어를 현실화 할 수 있는 공간
- 지방정부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의 국·공유재산을 사무·네트워킹 공간, 공동기숙사 등 창업지원 공간으로 활용
- (지역 창업포털 강화) 지역 스타트업을 위한 맞춤형 창업지원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창업지원 포털* 구축 및 기능 강화 (지방정부)
 - * 지역 창업기업이 신청 가능한 창업지원 사업, 지역 창업인프라, 투자사 등의 정보 제공 (현재 대구, 광주, 대전시에서 운영 중인 포털은 고도화, 울산시는 신설 구축 검토)
 - 지역별 창업지원 포털에 임대주택 공모 정보를 추가하여 창업·주거 정보 통합 제공
 - * 지역별 창업정책과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(주택금융 지원 등) 및 공공주택 정보 (임대주택·분양주택 공고 등)를 지자체 포털에 연계 제공(국토부 '마이홈 포털' 등 연계)
- (지역 창업 페스티벌) 5극 3특 광역권별 혁신주체를 통합하는 지역 창업 행사를 창업도시에서 개최하여, 기술·사업화 교류 촉진
 - * 창업기업, 투자사, 대중견 등이 집적·교류하는 행사를 광역권역별 연 12회 내외 개최 하며, IR, 구매상담회, 네트워킹 등 교류 프로그램과 성과공유회 등 부대 프로그램 구성

□ **성과 기반 지원체계 운영**

- (연간 평가) 연간 과업 실적·성과를 기반으로 성과평가를 시행하고, 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을 차등 지원
 - * 매년 실적, 과업 여건 등을 평가·점검하여 지원 예산 규모 조정 및 과업 보완 진행
- (중간 평가) 기본협약(~'28년말) 종료 시점에는 그간의 과업 실적과 성과를 종합 평가하여, 협약연장* 여부 심의·판단
 - * 기본 협약(2년, '26~'28) → 중간 평가('28년말) → 협약연장(추가 2년, '28~'30)
- (성과 평가) 과제 종료('30) 이후 과업수행 성과 최종 점검

〈 창업도시 과업·과제 관련 평가 체계 〉



※ 참고 : 지역별 창업도시 조성 방향(안)

◆ 지역별 추진 방향 및 세부 시행계획은 추후 지자체와 공동 수립 예정

1 대전 광역시 : “공공-민간이 과학으로 연결된 R&D 중심 딥테크 요람”

< 지역 창업도시 조성 방향 >

우수 기술이 제한 없이 민간에 보급되는 개방형 딥테크 창업도시

○ 생태계 특성 : 한국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, 9개 대학*이 교원, 학생 창업을 집중 육성하며, 창업기업에 대학의 인프라*를 개방

* 충남대, 한밭대, 한남대, 목원대, 배재대, 을지대, 우성대, 대전대, 건양대

** 예) 한국과학기술원 우주연구원 : 인력양성 교육, 극한환경 실증(시험) 등 지원

- (연구기관) 대학 외 최고 수준의 기술과 인력을 공급하는 연구기관의 집적* 및 연구성과(기술)의 창업을 지원하는 특구** 소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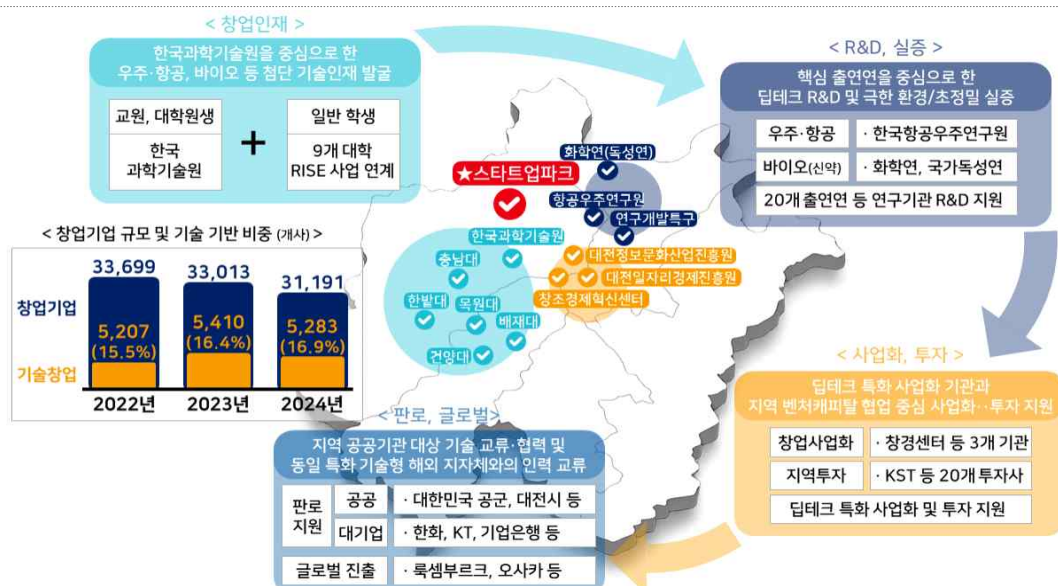
*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16개(64%)가 대전광역시 내 소재

** 대덕연구개발특구 : 출연연·산학협력 기반 연구소 기업 육성, 규제자유특구 운영 등

○ 지원방향 : 연구원(대학·연구기관)의 창업가 전환과 기술확산(기술이전 등)을 위한 자금(R&D·사업화·실증 등)을 집중 공급하며,

- 연구원 창업기업의 기술도입·개발부터 창업성장(상장 등)의 전주기 지원을 위한 자금(딥테크 투자 등), 인프라(입주·주거 등) 추가 공급

< 창업생태계 지원 방향 >



2 대구 광역시 : “5대 신산업(AI·로봇 등) 기반 대전환을 위한 스타트업 육성”

< 지역 창업도시 조성 방향 >

5대 신산업 기반의 산업 대전환을 시도하는 첨단 제조 창업도시

○ **생태계 특성** : 지방정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*에 따라, AI를 중심으로 한 제조 분야 산업의 AX 혁신(제조 산업 내 AI 적용)을 촉진

* ‘5대 신산업 육성 전략’ : 미래 모빌리티, 로봇, 헬스케어, 반도체, ABB(AI, 빅데이터, 블록체인) 산업을 기반으로, 기존 주력산업(제조)을 첨단 신산업으로 산업구조 개편

- (연구단지)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함께 지방정부 주도의 로봇, UAM, 반도체 특화단지*를 조성하여, 원천기술 개발·확산 활성화

* 달성군 국가산단, 테크노폴리스 등으로 구성되며, 출연연 분원 등 연구 인프라 집적

로봇	기계연구원(출연연), 생산기술연구원(출연연), 로봇산업진흥원,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등
반도체	한국전자통신연구원(출연연) 분원,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
UAM	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(공인 시험기관), 한국자동차연구원(전문연) 등

○ **지원방향** :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지역 연구기관 출신 기술 창업 기업에 R&D·실증 자금을 집중 공급하여, 기술 조기완성 촉진

- 첨단 신산업별 수요 창출, 판로 확보를 위해 국내외 대·중견과의 개방형 혁신*과 전략투자(SI) 여건을 동시 마련

* 예 미래 모빌리티 - 완성차 대기업, 로봇 - 완성차·건설·유통·물류 관련 산업현장 등

** 개방형 혁신 수요처 발굴 시, CVC를 보유한 국내외 대기업과의 우선 기술협업 연결

< 창업생태계 지원 방향 >



3 광주 광역시 : “국가 핵심 AI 인프라 기반 AI·모빌리티·에너지 융합도시”

< 지역 창업도시 조성 방향 >

과학기술원, AI·AX 특화 단지 기반 AI와 이종기술 융합형 실증 특화도시

○ 생태계 특성 : 정부의 핵심 AI 단지*를 기반으로, AI 모델 개발 및 산업(모빌리티, 에너지, 헬스케어 등) 융합형 AI 개발에 특화

* ‘AI 산업융합 집적단지’ : ’20년부터 과기부가 조성한 국내 최대 규모 AI 단지로, AI 모델 및 AX 기술 실증에 특화되어있으며, AI 창업, 데이터센터, 인력양성을 병행

- (인력양성) AI 단지와 연계하여, AI 융합대학(4개교*), AI 융합 아카데미 등을 통해 AI 기술·창업 인재를 지속 육성

* 광주과학기술원, 전남대학교, 호남대학교, 조선대학교

- (실증지원) AI 단지 내 모빌리티, 에너지, 헬스케어 분야별 실증 장비(총 77종*)를 통한 산업적용형 실증 및 데이터센터 운영

* 모빌리티 25종(시뮬레이터 등), 에너지 26종(전력 분석 등), 헬스케어 26종(신체데이터 수집 등)

○ 지원방향 : 전국의 AI 기술창업 인재가 집적되어 각자의 창업 사업화와 협력형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

* 예 지역이전 특화 사업화 자금·투자 펀드 매칭, 로컬·창업기업 간 교류협력 자금 등

- 산업용 AI의 보급을 위해, 로컬 연계를 통한 실수요처 발굴 병행

* 예 지역 내외 중견·강소·중소기업에 대한 AX 협업자금 지원, 정부 주요 로컬사업 (로컬 크리에이터, 혁신 소상공인 AI 등) 연계 지원 등

< 창업생태계 지원 방향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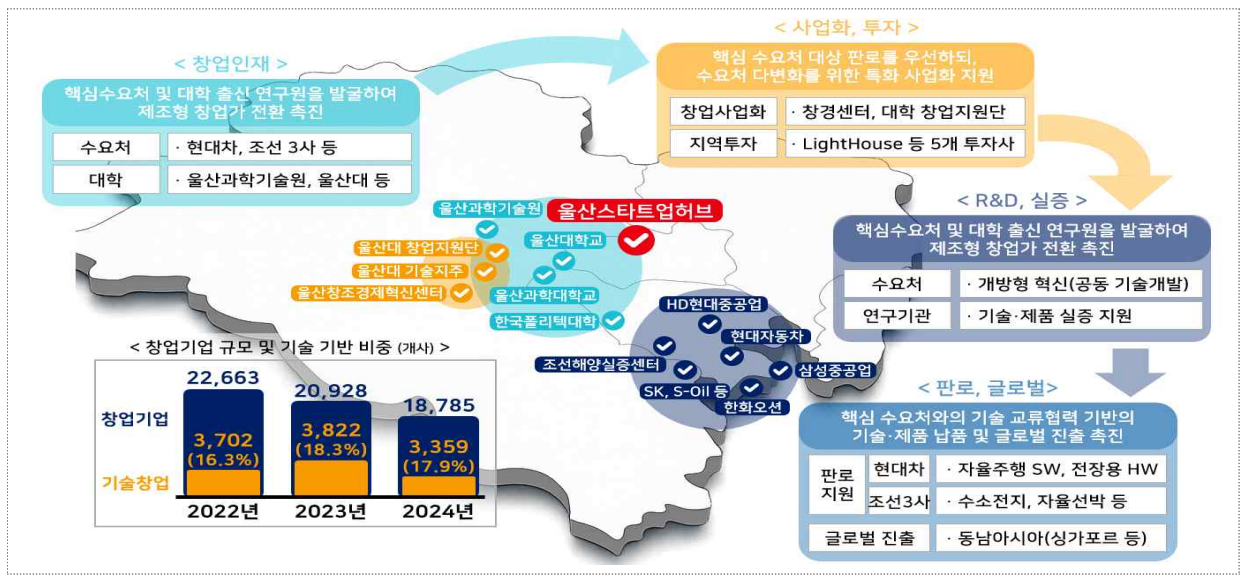
4 울산광역시 : “대기업 협력 기반 세계 최고의 제조 현장 실증형 도시”

< 지역 창업도시 조성 방향 >

제조 대기업 인프라가 제한 없이 개방되는 제조 수요창출형 실증 창업도시

- 생태계 특성 :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단일 도시 내 3대 산업의 글로벌 기업과 인프라가 동시 집적 되어있으며,
 - * ① 세계 1위 조선소(HD현대중공업), ② 세계 최대 단일 자동차 공장(현대자동차 울산공장), ③ 아시아 최대 석유화학 집적(에스오일)
 - (수요집중)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3대 산업별 국내 대·중견*의 인프라가 함께 집적되어, 창업기업 기술교류 기반 실증** 활발
 - * (화학) SK에너지·케미칼, 금호화학 / (자동차) 현대모비스 / (조선·해양) HD현대미포 등
 - ** 산업별 제조현장의 압도적인 데이터를 창업기업에 공개하여, 제조 현장 혁신을 협업
- 지원방향 : 울산과학기술원 및 지역 대학* 내 기술인재의 창업을 촉진하여, 창업실행 단계에서부터 수요처와의 협력 사업화 촉진
 - * 울산과학기술대학교, 울산대학교, 한국폴리텍대학
 - 지역 대중견의 기술 수요 기반 우수 기술인재를 공동 발굴하고, 기술협력 과정 내 대중견 인프라 외 지역 인프라*를 추가 연계
 - * 예) 조선해양 ICT 융합실증센터,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, 조선해양플랜트연구소 등
 - 수요기업과의 기술협업(☞ 협업자금) 및 기술실증(☞ 실증사업화)을 위한 자금을 적극 공급하고, 지역 딥테크 특화 투자 펀드 공급

< 창업생태계 지원 방향 >



VI. 추진 일정

추진 과제	소관부처	추진일정
① 창업의 씨앗인 기술 인재가 지역에 끊임없이 유입되게 하겠습니다		
딥테크 창업중심대학 신규 지정 및 창업중심대 확대 검토	중기부	'26.下
과학기술원 창업원 신설 확대	과기부	'26.下~
과학기술원 학사제도 개선	과기부	26.下~
과학기술원 및 지역거점대학 AI 단과대 등 설치 확대	과기부, 교육부	'27.~
거점국립대, 브랜드 단과대학 이수자 창업도시 지원 POOL 포함	중기부, 교육부	'27.~
창업자 산업용지 및 정주 마련 지원	국토부	27.~
이전 창업자 주거비, 교통비 등 정착지원금 지원(검토)	지방정부	'27.~
② 도전하는 창업자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겠습니다		
창업기업 전용 R&D 지원 확대	중기부	'27.~
TIPS R&D 지역 50% 할당 및 Pre-TIPS 우대	중기부	'27.~
첨단제조 및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제품 제작 지원	중기부	'27.~
기술창업의 숲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메이커 공간 조성	중기부	'27.~
창업도시를 규제자유특구로 추가 지정	중기부	'27.~
지역주력산업 관련 규제특례를 대폭 확충	중기부	26.下~
규제를 개선 해야하는 '규제입증책임제' 적극 활용	지방정부	'27.~
'글로벌 창업허브' 프로그램 연계 등 판로 지원	중기부	26.下~
③ Scale-up을 위해 자금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		
지역 소재·이전 창업기업 사업화 패키지 프로그램	중기부	26.下~
정책자금 심의 '패스트 트랙' 적용	중기부	'27.~
R&D 프로젝트 보증 및 R&D 사업화 유동화 보증 우선 지원	중기부	'27.~
'지역성장펀드'를 5극 3특(수도권 제외) 권역 중심으로 조성	중기부	'26.下~
④ 로컬창업 연계로 지역 창업생태계의 균형적 확장을 지원하겠습니다		
'강한소상공인', '로컬크리에이터' 사업 등 로컬사업 우대	중기부	26.下~
로컬창업타운 확대 ('25년 8개소 → '30년 17개소)	중기부	26.下~
로컬거점상권(~'30, 50곳) 및 '글로벌상권'(~'30, 17곳) 선정	중기부	26.下~
지역 창업 페스티벌 로컬연계 추진	중기부	26.上~
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업 과제 추진	중기부	'27.~
⑤ 어우러지는 거버넌스, 충돌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겠습니다		
통합 거버넌스 구축	지방정부	26.上
협력·지원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창업 공간 조성	중기부	26.下~
국유재산 활용, 창업지원 공간 조성	재경부	'27.~
창업지원 포털 구축 및 기능 강화	지방정부	'27.~
지역 창업 페스티벌 개최	중기부	26.下~